COMP '-는'의 격자질*

정 용 길

1. 서 론

한국어에서 완전히 굴절된 명사투사(nominal projection)와 동사투사(verbal projection)는 어간이 되는 명사핵과 동사핵에 굴절 접사들이 부착되어 이루어지며 그 각각의 접사는 특정한 자질 또는 기능을 지닌다. 예를 들어, 명사투사에서 허가되는 '-가,' '-를,' '-의'는 각각 [+Nom], [+Acc], [+Gen]라는 자질의 실현이며 '-들'과 '-께서'는 각각 [+Plural]과 [+Honorific]이라는 자질의 실현이다. 한편 동사투사에서 허가되는 '-시'와 '-았/었'은 각각 [+Honorific]과 [+Past]라는 자질의 실현이며 어말 접사인 '-다,' '-냐,' '-라'는 각각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라는 자질의 실현이다. 본 논문에서는 명사핵에 의해서 지배되는 동사투사에서 허가되는 접사 -'는'을 다루며 그것이 어떤 자질의 실현인가를 논의한다.

(1) ㄱ. [영희가 이겼다-는] 믿음
ㄴ. [누가 이겼냐-는] 질문
ㄷ. [빨라 오라-는] 부탁

(1)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접사 '-는'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체로 그 범주가 COMP라고 알려져 왔지만(Yoon: 1990) 그것이 가지는 구체적인 통사자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임동훈(1995)은 (1)에 나타나는 접사 '-는'이 COMP라는 주장을 비판하며 '-는'이 일종의 격조사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접사 '-는'이 범주상으로 COMP이며 동시에 [+Gen]라는 격자질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명사투사에서 허가되는 격조사들이 범주상 DET에 속한다는 분석과(Ahn and Yoon 1989; Bak 1990), 동사투사에서 허가되는 '-고'와 '-는'이 범주상 COMP에 속한다는 분석을(Yoon: 1990) 가정한다. 3장에서는 한국어에서 동사투사인 CP가 격을 할당받을 수 없다는 분석(Han 1987; Yoon 1993)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격자질이 CP와 DP에서 범주자

* 이 연구는 1999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논문에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 본인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질이 서로 다른 접사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장에서는 Grimshaw (1990)의 확대투사(extended projection) 개념에 입각하여, DP에 할당된 격자질 [+Gen]는 [+N, -V]의 범주자질을 가진 DET '-의'로 실현되며, CP에 할당된 격자질 [+Gen]는 [-N, +V]의 범주자질을 지닌 COMP '-는'으로 실현된다는 분석과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COMP '-는'이 [+Gen]라는 격자질의 실현이라는 분석에서 정상적인 관형 접사 '-는'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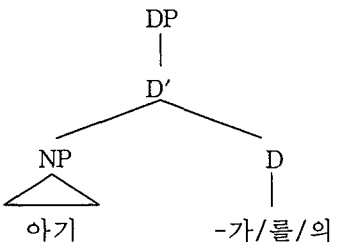
2. DET와 COMP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명사투사에서 허가되는 접사인 '-가,' '-를,' '-의'는 각각 그 명사투사에 할당되는 [+Nom], [+Acc], [+Gen]라는 격자질의 실현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2]

(2) ㄱ. [아기-가] 울었다.
ㄴ. [아기-를] 울렸다.
ㄷ. [아기-의] 장난감을 샀다.

명사투사에서 허가되는 이들 격조사의 범주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Ahn and Yoon(1989)과 Bak(1990)은 격조사가 명사투사, 즉 DP의 핵인 DET라는 분석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은 Abney(1987)의 DP 분석을 받아들이면서 핵말(head-final) 언어인 한국어에서 격조사가 DP의 마지막 위치에서 허가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논문에서는 격조사가 범주상 DET에 속한다고 가정한다.[3]

(3)



[2] 격을 할당하는 핵에 대해서는, [+Nom]는 INFL, [+Acc]는 V, 그리고 [+Gen]는 N에 의해서 할당된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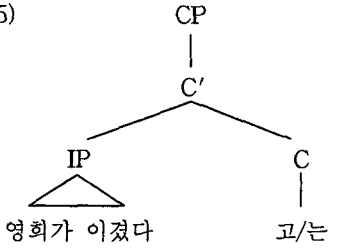
[3] Bittner and Hale(1996)는 독립적으로 격자질을 실현시키는 접사에 대해 독립적인 범주 K를 제시한다. 많은 언어에서 D가 격자질이 실현되는 범주일 뿐만 아니라(Emonds 1985; Abney 1987; Olsen 1989), 'referentiality'와도 관계가 있다는(Chomsky 1995)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어의 격조사를 K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격조사를 D로 보든 K로 보든 COMP '-는'에 대한 본 논문에서의 논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한편 동사투사에서 어말 접사 다음에 허가되는 '-고'와 '-는'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것들이 범주상 COMP에 속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Yoon 1990; Jung 1992).

(4) ㄱ. 나는 [영희가 이겼다-고] 믿는다.
ㄴ. [영희가 이겼다-는] 믿음

본 논문에서 Yoon(1990)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와 '-는'이 범주상 COMP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를 받아들인다.[4]

(5)



이제까지 명사투사의 핵인 DET에 속하는 접사들과 동사투사의 핵인 COMP에 속하는 접사들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 모든 접사는 고유한 문법자질-통사자질 또는 의미자질-을 가진다고 할 때, 위에서 COMP라고 분석한 '-고'와 '-는'은 어떤 문법자질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고'와 '-는'은 Subordinator로서의 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기능 이외에 어떤 문법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지 Subordinator로서의 기능만을 가진다고 하면 왜 그 기능이 '-고'와 '-는'이라는 서로 상이한 형태의 COMP로 나타나는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언어에서 범주상으로 같은 COMP에 속하는 어휘 보문소(lexical complementizer)들이 상이한 문법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와 West Flemish를 살펴보자.

(6) ㄱ. John believes that/*whether Sue is smart. (English)
ㄴ. John asked whether/*that Sue is smart.

(7) ㄱ. John hopes that/*for Sue will be examined.
ㄴ. John arranged for/*that Sue to be examined.

---

[4] 문장 종결 접사인 '-다'의 범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예를 들어 Kim(1991)은 INFL로, Ahn and Yoon(1989)는 MOOD로, 그리고 Jung(1992)는 COMP로 분석한다.

(8) ㄱ. da/*dan Pol zat is (West Flemish: Haegeman 1991)
that Pol drunk is
'that Pol is drunk'
ㄴ. dan/*da Pol en Valere zat zijn
that Pol and Valere drunk are
'that Pol and Valere are drunk'

(6)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에서 that과 whether는 둘 다 COMP라는 범주에 속하지만(Emonds 1985) 전자는 [-Wh-], 후자에는 [+Wh-]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that과 whether를 구별해 주는 문법자질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that과 for 역시 같은 범주 COMP에 속한다. 그러나 전자는 [+Tense], 후자는 [-Tense]라는 시제 자질을 지니고 있어 서로 구별이 된다. West Flemish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5] (8)에서 보는 것처럼 West Flemish에는 da와 dan이라는 COMP가 존재하는데 전자에는 [-Plural], 그리고 후자에는 [+Plural]이라는 문법 자질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에서 COMP '-고'와 '-는'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두 COMP를 구별시켜 줄 어떤 문법자질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Jeong(1999)은 COMP '-고'가 [+Acc]라는 격자질의 실현이라는 분석을 제시하는 데, 본 논문에서는 COMP '-는'이 [+Gen]라는 격자질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6] 이러한 분석에서는 '-의'와 '-는' 모두 [+Gen] 자질의 실현으로서 인정되는데 이 점에서 '-의'와 '-는'은 공통의 문법자질을 지니지만 범주자질이라는 면에서는 구별이 된다. 즉 전자는 [+N, -V]이며 후자는 [-N, +V]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DET '-의'는 [+Gen] 자질이 명사투사에서 실현된 것이며 COMP '-는'은 [+Gen] 자질이 동사투사에서 실현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

[5] Lizzi(1990)는 형태가 같은 COMP일지라도 서로 다른 문법 자질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i) ㄱ. John believes [that Sue is smart].
ㄴ. John met the girl [that Bill loved].

그는 (iㄱ)의 that은 [+predicative] 자질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iㄴ)의 that은 [-predicative] 자질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어에서는 이 자질이 형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자질이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Siloni(1995) 역시 Hebrew의 COMP인 she-와 -ha가 이 자질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고 주장한다.

[6] 임동훈(1995)은 '-고'가 일종의 부사격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그는 '-는'을 속격조사로 분석하고 있다. 그의 분석과 본 논문에서의 분석의 차이점은 '-는'의 범주를 COMP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는 '-는'이 COMP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본 논문에서는 '-는'이 범주상 COMP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9) 접사	범주	범주자질	문법자질
-의	DET	[+N, -V]	[+Gen]
-는	COMP	[-N, +V]	[+Gen]

3. 격저항 원리(Stowell 1981)와 확대투사 (Grimshaw 1990)

본 장에서는 한국어에서 CP가 격을 할당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그 격자질이 형태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먼저 한국어에서 CP가 격을 할당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본다. Han(1987)과 Yoon(1993)은 Stowell(1981)의 격저항 원리(Case Resistance Principle)를 한국어에 적용하여 한국어에서도 CP는 격을 할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Stowell(1981)은 다음과 같은 격저항 원리을 제안한다.

(10) Case Resistance Principle
Case may not be assigned to a category bearing Case-assigning feature.

그는 CP는 격을 할당할 수 있는 자질, 즉 [+Tense]가 있으므로 격을 할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영어에서의 DP와 CP의 서로 다른 분포적 특성을 설명하려고 한다.[7]

Han(1987)은 Stowell의 격저항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어에서도 CP가 격을 할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Yoon(1993) 역시 한국어에서 CP가 격을 할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Stowell(1981)의 주장과 달리 Yoon(1993)은 CP가 격을 할당받지 못하는 것은 CP가 [+Tense]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CP의 핵인 COMP '-고나 '-는'이 [-N]의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CP가 격을 할당받을 수 없다는 Han(1987)과 Yoon(1993)의 주장은 전형적인 격조사인 '-가,' '-를,' '-의,' '-에' 등이 DP에서는 허가되지만 CP에서 허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8]

---

[7] Stowell(1981)의 격저항 원리가 야기시키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Contreras(1985), Plann(1986), Yoon(1993), Jeong(1998)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8] 고정어순을 가지고 격자질이 형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영어에서는 CP가 격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CP의 외적인 분포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어순이 자유롭고 격자질이 접사로 실현이 되는 한국어에서는 외적 분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CP 안에 격조사가 허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i) ㄱ. *나는 [영희가 이겼다-를] 믿는다.
ㄴ. *I am sure of [that Sue won]

(11) ㄱ. 나는 [$_{DP}$ 영희의 승리-를] 믿었다.
ㄴ. [$_{DP}$ 승리-의] 인정
ㄷ. [$_{DP}$ 영희의 승리-가] 우리를 놀라게 했다.
ㄹ. [$_{DP}$ 영희의 승리-에] 관심이 모아졌다.

(12) ㄱ. *나는 [$_{CP}$ 영희가 이겼다(고)-를] 믿었다.
ㄴ. *[$_{CP}$ 영희가 이겼다(는)-의] 믿음
ㄷ. *[$_{CP}$ 영희가 이겼다(고/는)-가] 우리를 놀라게 했다.
ㄹ. *[$_{CP}$ 영희가 이겼다(고/는)-에] 관심이 모아졌다.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가,' '-를,' '-의,' '-에'와 같은 격조사들이 DP에는 허가되지만 CP에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반드시 CP가 격을 할당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어에서 CP가 격을 할당받을 수 없다는 Han(1987)과 Yoon(1993)의 주장은 격자질이 DP에 할당되든 CP에 할당되든 관계없이 항상 같은 접사, 다시 말해서 [+N, -V]의 범주자질을 가진 접사로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는 문제가 있다.

Grimshaw(1990)는 확대투사(extended projection)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즉 명사핵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ies)는 하나의 확대투사를 형성하고 동사핵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기능범주들이 하나의 확대투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대투사 안에 있는 모든 범주는 같은 범주자질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INFL과 COMP와 같은 기능범주는 그 어휘핵인 동사핵과 같은 범주자질을 가지며 DET는 그 어휘핵인 명사핵과 같은 범주자질을 가지게 된다. Grimshaw의 확대투사 개념을 받아들이면 명사투사에서 허가되는 모든 기능범주들은 [+N, -V]의 범주자질을 갖게 되며, 동사투사에서 허가되는 모든 범주들은 [-N, +V]의 범주자질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명사투사에서 허가되는 '-가,' '-를,' '-의'와 같은 격조사들은 [+N, -V]의 자질을 지니며 동사투사에서 허가되는 '-시,' '었/았,' '-다' 등은 [-N, +V]의 자질을 가지게 된다.[9]

---

[9] 한국어에서 범주자질을 논의할 때 V-자질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N, V, A, P라는 네 가지의 주요 범주를 자질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N-] 자질과 [V-] 자질이 모두 필요하다 (Chomsky 1981; Stowell 1981).

(i) N [+N, -V]
V [-N, +V]
A [+N, +V]
P [-N, -V]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하나의 범주로 통합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점과 P라는 범주는 사실상 명사핵에 부가되는 접사라는 점에서 [N-] 자질 하나만으로도

(13)

접사	범주자질	문법자질
아기	[+N, -V]	
-가	[+N, -V]	[+Nom]
-를	[+N, -V]	[+Acc]
-의	[+N, -V]	[+Gen]
오	[-N, +V]	
-시	[-N, +V]	[+Honorific]
-었/았	[-N, +V]	[+Past]
-다	[-N, +V]	[+Declarative]

[+N, -V]의 자질을 가진 접사들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자질에 관계없이 동사투사에서는 허가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접사들의 범주자질이 어휘핵인 동사의 범주자질과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N, +V]의 범주자질을 가진 접사들은 그것이 어떠한 통사자질을 지니고 있든지 관계없이 명사투사에서 허가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가,' '-를,' '-의'와 같은 접사들이 동사투사에 허가되지 않는 것은 그것들이 격조사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의 범주자질이 [+N, -V]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어떤 자질이 명사투사에 할당된다면 그 자질은 분명히 [+N, -V]의 범주자질을 가지는 접사로 실현될 것이며 동사투사에 할당된다면 [-N, +V]의 범주자질을 가지는 접사로 실현될 것이다. 한국어에서 실제로 이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Honorific]이라는 자질은 명사투사와 동사투사 모두에 할당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자질은 명사투사와 동사투사에서 서로 다른 접사로 실현된다.

(14) ㄱ. 아버지-께서 오-시-었다.
ㄴ. *아버지-시
ㄷ. *오-께서-었다

(14ㄱ)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투사에 할당된 [+Honorific] 자질은 [+N, -V]의 범주자질을 지닌 '-께서'로 실현되었으며 동사투사에 할당된 같은 자질은 [-N, +V]의 범주자질을 지닌 '-시'로 실현되었다.[10] 접사 '-시'는 명사투사에서 허가

충분할 것 같다.

[10] 접사 '-께서'가 단지 [+Honorific] 자질만의 실현인지 또는 [+Honorific]과 [+Nom] 자질이 함께 실현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Nom] 자질은 영형태(null form)로 실현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자질의 실현에 의해서 형태적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

(i) ㄱ. 영희-(가) 어디 있어요?
ㄴ. 영희-도/만/는 왔어요

일단 '-께서'는 단순히 [+Honorific]의 실현이며 [+Nom] 자질은 '-께서'에 의해 형태적으로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지지해 줄만한 사실은 (ii)에서 보는 것처럼

되지 않으며 또 접사 '-께서'는 동사투사에 허가되지 않는다. '-시'가 명사투사에 허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사투사가 [+Honorific]이라는 자질을 할당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가 명사투사에서 허가되지 않는 이유는 '-시'가 [-N, +V]의 범주자질을 가지고 있고 명사투사는 [+N, -V]의 범주자질을 가지고 있어 그 자질들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께서'가 동사투사에 허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사투사가 [+Honorific]의 자질을 할당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께서'와 동사투사가 범주자질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께서'가 동사투사에 허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에는 [+Honorific]이라는 문법자질을 공유하면서 범주자질이 서로 다른 두 접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15) -께서 [+N, -V] [+Honorific]
-시 [-N, +V] [+Honorific]

'and'를 의미하는 한국어 접사 '-과'와 '-고' 역시 특정 자질이 명사투사와 동사투사에서 형태상 서로 다른 접사로 실현되는 것을 잘 보여 준다.

(16) ㄱ. 나는 [$_{DP}$ 책-과] 지도를 샀다.
ㄴ. *[$_{CP}$ 영희는 책을 사-과] 철수는 지도를 샀다.

(17) ㄱ. [$_{CP}$ 영희는 책을 사-고] 철수는 지도를 샀다.
ㄴ. *나는 [$_{DP}$ 책-고] 지도를 샀다.

(16)의 예문은 [+Conjunction]이라는 문법자질/기능을 지닌 접사 '-과'가 명사투사에는 허가되지만 동사투사에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는 [+Conjunction]이라는 자질/기능이 동사투사에 할당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가 동사투사에 허가되지 않는 것은 '-과'가 지니는 범주자질 [+N, -V]가 동사핵이 지니는 범주자질 [-N, +V]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17)의 예문은 같은 자질/기능을 가진 접사 '-고'가 동사투사에서는 허가되지만 명사투사에서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역시 명사투사에 [+Conjunction]이라는 자질이 할당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와 명사핵이 그 범주자질에 있어 서로 상충되지 때문에 '-고'가

[+Nom] 자질이 '-께서'와는 독립적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ii) 선생님-께서-만-이 오셨다.

(ii)에서 주어인 명사투사는 [+Nom] 자질을 할당받는 데 이 자질은 접사 '-이'로 실현되었다. 그렇다면 '-께서'는 격자질이 아닌 [+Honorific] 자질만의 실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명사투사에 허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한국어에는 [+Conjunction]이라는 문법자질을 공유하지만 범주자질이 서로 다른 두 접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18) -과 [+N, -V] [+Conjunction]
-고 [-N, +V] [+Conjunction]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특정 문법자질이 명사투사에 할당될 때와 동사투사에 할당될 때에 범주자질이 서로 다른 접사, 즉 각각 [+N, -V] 그리고 [-N, +V]의 자질을 가진 접사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볼 때 [+N, -V]의 자질을 지닌 격조사들이 동사투사에 허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사투사가 격을 할당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아무런 관련도 없게 된다. CP가 격을 할당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논의한다면 그 할당되는 격자질이 [-N, +V]의 자질의 접사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격자질이 동사투사에 할당될 때 [-N, +V]의 접사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까지 한국어의 접사는 그 범주자질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한국어의 모든 접사의 범주자질이 [+N, -V] 아니면 [-N, +V]이다라는 절대적인 이분법적 분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동사투사와 명사투사에 동일하게 허가되는 접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한정사(delimiter)라고 불리는 접사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19) ㄱ. 철수는 [영희가 이겼다고-만/도/까지] 말했다.
ㄴ. 철수는 [영희-만/도/까지] 만났다.

명사투사와 동사투사 모두에서 허가되는 접사들의 경우 중립적인(neutralized) 범주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Chomsky 1981). 그러나 이러한 중립적인 접사들의 존재가 격자질이 동사투사와 명사투사에서 서로 다른 범주자질의 접사로 실현된다는 주장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 '-를,' '-의'와 같은 격조사들이 [+N, -V]의 범주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4. -는: [+Gen] 자질의 실현

본 장에서는 명사핵에 의해서 허가되는 [+Gen] 자질이 명사투사에 할당될 경우 [+N, -V]의 자질을 지니는 DET '-의'로 실현되는 반면에 동사투사에 할당될 경우 [-N, +V]의 자질을 지니는 COMP '-는'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는'과 '-의'가 허가되는 환경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의문 인용문에서 '-는'과 '-의'가 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는'이 역사적으로 속격조사인 '-ㅅ'의 변화된 접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임동훈 1995).

4.1. '-의'와 '-는'의 분포

[+N, -V]의 범주자질과 [+Gen]의 문법자질을 지닌 '-의'는 명사핵에 의해서 지배(govern)될 때 허가된다. 즉 '-의'는 명사핵의 보어로 쓰이는 명사투사의 핵인 DET 위치에 허가된다. 그런데 (20ㄷ, 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N, +V]의 범주자질을 지닌 접사 '-는' 역시 명사핵에 의해서 지배될 때 허가된다. 다시 말해서 '-는'은 명사핵의 보어로 쓰이는 동사투사의 핵인 COMP 위치에 허가된다.

(20) ㄱ. [$_{DP}$ 언어학-의] 연구
ㄴ. [$_{DP}$ 범행-의] 인정
ㄷ. [$_{CP}$ 영희가 이겼다-는] 믿음
ㄹ. [$_{CP}$ 한국이 이겼다-는] 보도

격조사 '-의'가 명사핵에 의해서 허가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의 예문들은 DET '-의'뿐만 아니라 COMP '-는' 역시 명사핵에 의해서 허가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DET '-의'는 동사핵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기능범주인 INFL에 의해서 지배되는 명사투사에서는 허가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COMP '-는' 역시 동사핵이나 INFL에 의해서 지배되는 CP에서는 허가되지 않는다.

(21) ㄱ. *나는 [$_{DP}$ 신문보도-의] 믿었다.
ㄴ. *나는 [$_{CP}$ 영희가 이겼다-는] 믿었다.

(22) ㄱ. *[$_{DP}$ 신문보도-의] 나를 놀라게 했다.
ㄴ. *[$_{CP}$ 영희가 이겼다-는] 나를 놀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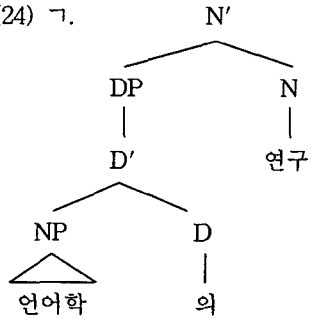
동사핵에 의해서 지배되는 명사투사는 동사핵으로부터 [+Acc] 자질을 할당받게 되므로 [+Acc] 자질의 실현인 '-를'이 허가될 수 있다. INFL에 의해서 지배되는 명사투사는 [+Nom] 자질을 할당받게 되므로 [+Nom] 자질의 실현인 '-가'가 허가될 수 있다.

(23) ㄱ. 나는 [$_{DP}$ 신문보도-를] 믿었다.
ㄴ. [$_{DP}$ 신문보도-가] 나를 놀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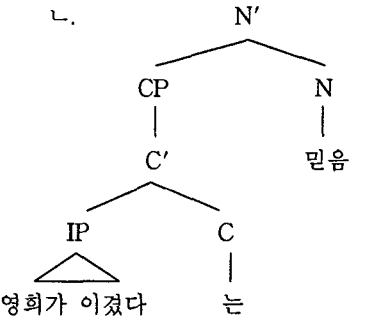
다시 말해서 (21ㄱ)과 (22ㄱ)은 [+Gen] 자질이 할당될 수 없는 환경에서는 DET '-의'가 허가될 수 없는 것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21ㄴ)과 (22ㄴ) 예문은 COMP '-는' 역시 [+Gen]가 할당될 수 없는 환경에서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의'와 '-는'이 허가되는 환경이 동일하다는 사실, 즉 '-의'와 '-는'이 [+Gen] 자질이 할당될 수 있는 환경

에서만 허가된다는 사실로 볼 때, COMP '-는'이 [+Gen]라는 격자질의 실현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DET '-의'와 COMP '-는'이 허가되는 환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24) ㄱ.



ㄴ.



'-의'와 '-는'이 같은 환경에서 허가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의'와 '-는' 모두 [+Gen] 자질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Gen] 자질이 명사투사에 할당될 경우 그 자질은 [+N, -V]의 범주자질을 지니는 DET '-의'로 실현되며 동사투사에 할당될 경우 [-N, +V]의 범주자질을 지니는 COMP '-는'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Gen]라는 문법자질을 공유하는, 그러나 범주자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접사를 가지게 된다.

(25)

접사	범주	범주자질	문법자질
-의	DET	[+N, -V]	[+Gen]
-는	COMP	[-N, +V]	[+Gen]

COMP '-는'이 [+Gen]의 실현이라는 본 논문에서의 분석은, (4ㄱ)에서 허가되는 COMP '-고'가 [+Acc]의 실현이라는 Jeong(1999)의 분석과 함께, 한국어가 왜 COMP '-고'와 '-는'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보았듯이, 영어의 that과 for는 각각 [+Tense], [-Tense]라는 자질로 가지고 있어 서로 구별이 되고, West Flemish의 da와 dan은 각각 [-Plural], [+Plural]이라는 자질을 지니고 있어 서로 구별이 되는 것처럼, 한국어의 '-고'와 '-는'은 각각 [+Acc], [+Gen] 자질을 가지고 있어 서로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다.[11]

---

[11] 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했듯이, DET '-의'와 COMP '-는'의 분포가 서로 같다는 것은 '-는'이 [+Gen]의 실현이라는 분석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분포만 같다고 해서 '-는'을 [+Gen]의 실현이라고 본다면 명사핵에 의해서 허가되는 모든 접사들이 다 [+Gen] 자질의 실현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사핵에 의해서 허가되는 다른 접사들에 대해서는 5장에서 논의한다.

4.2. 인용 의문문

3장에서 [+N, -V]의 범주자질을 가진 격조사들이 CP에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CP와는 달리 인용 의문문(interrogative CP)의 경우에는 [-N, +V]의 자질을 가진 격조사뿐만 아니라 [+N, -V]의 자질을 가진 격조사들도 자유롭게 허가된다.

(26) ㄱ. [영희가 이겼다-*의/는] 믿음
ㄴ. [내일 오라-*의/는] 부탁
ㄷ. [같이 가자-*의/는] 제안
ㄹ. [누가 이겼냐-의/는] 문제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에는 [+N, -V] 접사인 DET '-의'가 허가되지 않는데 비해 인용 의문문에서는 허가된다. 나아가 (26ㄹ)는 인용 의문문에서 COMP '-는'과 DET '-의'가 서로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COMP '-는'이 [+Gen]의 실현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6ㄹ)에서 의문 인용문에서 COMP '-는'이 [+Gen] 자질의 실현인 DET '-의'를 대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다음의 예문들은 '-는'이 '-의'는 대치할 수 있지만 다른 격조사들은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7) ㄱ. [누가 이겼냐-가/*는] 중요하다.
ㄴ. 나는 [누가 이겼냐-를/*는] 물었다.
ㄷ. [누가 이겼냐-에/*는] 관심이 모아졌다.
ㄹ. 나는 [누가 이겼냐-의/는] 문제를 거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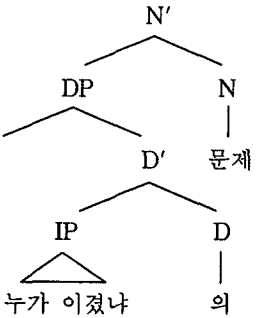
결국 COMP '-는'이 [+Gen]의 실현인 '-의'를 대치할 수 있다는 사실과 '-는'이 '-의'이외의 다른 격조사들을 대치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은 '-는'이 [+Gen]의 실현일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인용 의문문에 [+N, -V]인 DET '-의'뿐만 아니라 [-N, -V]인 COMP '-는'도 허가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의문 인용문의 범주자질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한가지 해결 방안은 의문 인용문의 경우 그 범주자질이 [+N, -V]도 아니고 [-N, +V]도 아니라 중립적 범주자질(feature neutralization)을 지닌다고 가정하는 것이다.[12] 사실 중립적인 범주나 범주자질에 대한 가정은 여러 가지 통사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Chomsky 1981; Grimshaw 1990; Lee 1994). (27)의 '누가 이겼냐'라는 의문문이 중립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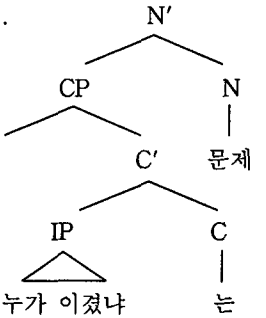
[12] 이러한 개념은 음운론의 'underspecification'의 개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인 범주자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가정할 경우, [+N, -V] 자질의 '-의'나 [-N, +V] 자질의 '-는' 이 그 의문문의 범주자질이 상충되지 않는다. '-의'를 DET로, 그리고 '-는'을 COMP라고 보는 분석에서는, [+Gen] 자질이 '-의'로 실현된 의문 인용문을 DP로, '-는'으로 실현된 의문 인용문을 CP로 간주하게 된다.[13]

(28) ㄱ.



ㄴ.



의문 인용문이 DET의 보어가 되기도 하고 COMP의 보어가 되기도 하는 것은 의문형 접사 '-냐'로 귀속된다. 즉 '-다,' '-라,' '-자'와 같은 [-N, +V] 자질의 어말 접사와 달리 의문형 접사 '-냐'는 중립적 범주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중립적인 범주자질은 영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어에서는 DP는 허가되지만 CP는 허가되지 않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CP는 허가되지만 DP는 허가되지 않는 환경도 있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29) ㄱ. Attention was paid to [$_{DP}$ the report that Sue won].
ㄴ. *Attention was paid to [$_{CP}$ that Sue won].

(30) ㄱ. *It is not important [$_{DP}$ the report that Sue won].
ㄴ. It is not important [$_{CP}$ that Sue won]

(29)에서 보는 것처럼 DP는 P의 보어 위치에서 허가되지만 CP는 허가되지 않는다. 반면에 (30)에서 알 수 있듯이 CP는 외치(extrpose)시킬 수 있지만 DP는 외치시킬 수 없다. 영어에서 DP와 CP의 분포상의 차이는 이른바 *of*-insertion이라는 것에 의해서 또한 분명히 보여진다. 즉 명사핵이 DP를 보어로 택할 경우 *of*-insertion이 일어나지만 CP를 보어로 택할 경우 일어나지 않는다.

---

[13] 기능범주인 D는 NP를 보어로 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D가 IP를 보어로 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Abney(1987)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는 영어의 동명사 구문을 D-IP로 분석한다.

(31) ㄱ. John's belief *(of) [$_{DP}$ the report]
ㄴ. John's belief (*of) [$_{CP}$ that Sue won]

지금까지 범주자질이 서로 다른 DP와 CP의 분포상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29ㄴ), (30ㄴ), (31ㄴ)에 내포된 CP와는 달리 영어의 의문 내포문은 분포에 있어서 DP와 CP의 속성을 둘 다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평서 내포문과 달리 의문 내포문은 DP가 허가되는 위치에서도 허가되며 CP가 허가되는 위치에서도 허가된다. 또한 의문 내포문의 경우 *of*-insertion이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32) ㄱ. It is not important [whether Sue won].
ㄴ. Attention was paid to [whether Sue won].
ㄷ. Joe's question (of) [whether Sue is smart]

(32)의 예문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은 영어의 의문 인용문은 다른 종류의 CP와 달리 [+N, -V]도 아니고 [-N, +V]도 아닌 중립적인 범주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14]

4.3. '-는'의 역사적 변천

임동훈(1995)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COMP '-는'이 [+Gen] 자질의 실현이라고 볼만한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중세국어에서 인용문의 대표적인 형식은 'NP-이 S ᄒᆞ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문에 해당하는 명사구는 'NP-이 S ᄒᆞ논 말'이다. 그는 'NP-이 ᄒᆞ논 말'이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천을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33) NP이 S ᄒᆞ논 말 >
NP이 S ᄒᆞ논 말/NP이 S-ㅅ 말 >
NP이 S-ㄴ 말 >
NP이 S-는 말

그는 처음에는 'NP이 S ᄒᆞ논 말'이 홀로 쓰이다가 그 후 속격 조사 '-ㅅ'이 들어간 'NP이 S-ㅅ 말'로 교체되기도 하여 이 둘이 공존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속격 조사 -ㅅ이 들어간 구문은 16세기 이후 'NP이 S-ㄴ 말'로 교체되었고 또 다시 현재의 'NP이 S-는 말'로 교체되었다. 그는 'S-ㅅ 말'과 'S-ㄴ 말'이 공존하는 예를 제시한다.

---

[14] Abney(1987)는 영어에서 의문인용문의 핵인 COMP에 있는 Agreement 자질이 의문인용문 CP 전체를 [+N]의 성격으로 바꾸어 준다고 주장한다.

(34) ㄱ. [주그시다-ㅅ] 마리라 (가례 서: 4) (임동훈 1995: 122)
ㄴ. [치다-ㄴ] 마리라 (가례 1: 28)

역사적으로 속격조사인 '-ㅅ'이 COMP '-는'으로 변천하였다는 사실은 COMP '-는'이 [+Gen]의 실현이라는 분석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5. 관형 접사 '-는'

지금까지 COMP '-는'이 명사핵에 의해서 CP에게 할당된 [+Gen] 자질의 실현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COMP '-는'과 관련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다,' '-라,' '-자,' '-냐' 등 어말 접사 다음에서 허가되는 COMP '-는'만을 다루었다. 이 COMP '-는'은 정상적인 관형사형 접사 '-는'과 형태상 동일하며 명사핵에 의해서만 허가된다는 점에서 공통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의 예를 비교해 보자.

(35) ㄱ. [영희가 이겼다-는] 믿음
ㄴ. [영희가 사랑하-는] 사람

(35ㄱ)와 ((35ㄴ)에서 접사 '-는'은 모두 명사핵에 의해서 지배/허가된다. 그러므로 (35ㄱ)의 접사 '-는'이 명사핵에 의해서 동사투사에 할당된 [+Gen]의 실현이라는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35ㄴ)의 접사 '-는' 역시 [+Gen] 자질의 실현이라고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유보하고 (35ㄴ)의 '-는'이 (35ㄱ)의 '-는'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먼저 (35ㄱ)의 CP는 논항(argument)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35ㄴ)의 CP는 술어(predicate)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논항은 격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술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전자에 허가된 '-는'이 격자질의 실현이라고 할 만 하지만 후자에 허가된 '-는'은 격자질의 실현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35ㄴ)의 '-는'은 시제에 따라서 다른 접사로 대치될 수가 있으나 (35ㄱ)의 '-는'은 그렇지 않다.

(36) ㄱ. [영희가 이겼다-는/*ㄴ/*ㄹ] 믿음
ㄴ. [영희가 사랑하-는/ㄴ/ㄹ] 사람

(36ㄴ)에서 허가되는 '-는,' '-ㄴ,' '-ㄹ'은 모두 시제 자질과 관련이 있다. (36ㄴ)의 접사들과는 달리, (36ㄱ)의 COMP '-는'은 시제 자질과는 무관하다. 결국 문

제는 (36ㄴ)에 허가된 접사 '-는,' '-ㄴ,' '-ㄹ' 등이 특정 시제 자질뿐만 아니라 [+Gen] 자질까지도 실현하는가라는 것이다. 여러 자질이 하나의 접사로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Honorifc]라는 자질과 [+Dat]라는 격자질이 '-께'라는 하나의 접사로 실현된다.

(37) ㄱ. 친구-에게 책을 주었다.
ㄴ. 아버지-께 책을 드렸다

COMP -는이 [+Gen]의 실현이라는 분석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38ㄴ)에서 허가되는 '-고 하는'을 역시 [+Gen]의 실현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38) ㄱ. [영희가 이겼다-는] 말
ㄴ. [영희가 이겼다-고 하는] 말

혹자는 (38ㄱ)은 ((38ㄴ)에서 '-고 하-'가 탈락하면서 도출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38ㄱ)의 '-는'과 (38ㄴ)의 '-는'은 서로 상이하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39) ㄱ. [영희가 이겼다-고 하-는] 말
ㄴ. [영희가 이겼다-고 하-ㄴ] 말
ㄷ. [영희가 이겼다-고 하-ㄹ] 말

만약에 (38ㄱ)이 (38ㄴ)에서 '-고 하-'가 탈락하면서 도출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39)의 예문들에서도 '-고 하-'가 탈락하여 도출된 문장들이 적법한 문장이라고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의 예문들이 보여 주는 것처럼 사실이 아니다.

(40) ㄱ. [영희가 이겼다-(고 하)-는] 말
ㄴ. [영희가 이겼다-*(고 하)-ㄴ] 말
ㄷ. [영희가 이겼다-*(고 하)-ㄹ] 말

(38ㄱ)이 (38ㄴ)에서 '-고 하-'가 탈락되어 도출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는 예문들이 또 있다.

(41) ㄱ. [영희가 이겼다-는] 보도
ㄴ. *[영희가 이겼다-고 하-는] 보도
ㄷ. [영희가 이겼냐-는] 질문
ㄹ. *[영희가 이겼냐-고 하-는] 질문

(38ㄱ)의 '-는'과 (38ㄴ)의 '-고 하는'이 결국 같은 것이라면 왜 (41ㄱ, ㄷ)이 정문이고 (41ㄴ, ㄹ)이 비문인가를 설명해야 된다. 따라서 (38ㄱ)의 '-는'과 (38ㄴ)의 '-고'하는 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도 (38ㄴ)의 '-는'이 과연 [+Gen] 자질의 실현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문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특정 문법자질이 명사투사에 할당될 경우 [+N, -V]의 범주자질을 지닌 접사로 실현되며, 동사투사에 할당될 경우 [-N, +V]의 범주자질을 지닌 접사로 실현된다는 전제 하에서 명사투사에 할당된 [+Gen] 자질은 DET '-의'로 실현되는 반면에 동사투사에 할당된 [+Gen] 자질은 COMP '-는'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증거로 첫째는 '-의'와 '-는'이 허가되는 환경이 동일하다는 것, 즉 둘 다 명사핵에 의해서만 허가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의문 인용문에서 '-의'와 '-는'이 서로 대치 가능하다는 것이고, 셋째는 COMP '-는'이 역사적으로 속격조사인 '-ㅅ'이 변하여 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분석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명사핵에 의해서 허가되는 다른 접사들에 대한 심도있는 추후 논의가 요구된다.

References

임동훈 (1995) '통사론과 통사단위,' 어학연구 31.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Abney, S. (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Doctoral Dissertation, MIT.

Ahn, H.-D. and H.-J. Yoon (1989) 'Functional Categories in Korean,'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Bak, J.-S. (1990) *Accord Casuel et Sujets Multples en Core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aris VIII.

Bayer, J. (1984) 'Towards an Explanation of Certain that-t Phenomenon,' in W. de Geest and Y. Putseys, eds., *Sentential Complementation*, Dordrecht, Foris.

Bittner, M. and K. Hale (1996) 'The Structural Determination of Case and Agreement,' *Linguistic Inquiry* 27.1.

Choe, H.-S. (1988)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 A Transformational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MIT.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The Pisa Lectures*, Dordrecht, Foris.

_____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_____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

_____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Contreras, H. (1985) 'Clausal Case-Marking and the CRP,' in L. King and C. Maley, eds., *Selected Papers from the 13th Linguistic Symposium on Romance Languages.*

Emonds, J. (1985) *A Unified Theory of Syntactic Categories*, Dordrecht, Foris.

Fukui, N. (1987) *A Theory of Category Projection and Its Applications*, Doctoral Dissertation, MIT.

Gorbert, L. (1973) 'Case Markers and Complementizers in Diegueno,' *Working Papers on Language Universals* 11, Stanford University.

Grimshaw, J. (1990) 'Extended Projection,' ms., Brandeis University.

Haegeman, L. (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Han, H.-S. (1987) *The Configur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orn, G. (1975) 'On the Nonsentential Nature of the POSS-ING Constructions,' *Linguistic Analysis* 1.

Jeong, Y.-K. (1998) *Clausal Case Marking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_____ (1999) 'COMP *-Ko* and Case Markers,' i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9.

Jung, Y.-J. (1992) *A Restrictive Theory of Functional Categories and Their Parametric Vari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Lee, Y.-S. (1994) 'Scrambling as Case-driven Movement,'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4.

Olsen, S. (1989) 'Agr(eement) in the German Noun Phrase,' in Bhatt, C., E. Lobel, and C. Schmidt, eds., *Syntactic Phrase Structure Phenomena in Noun Phrases and Sentences.*

Plann, S. (1986) 'On Case-Marking Clauses in Spanish: Evidence against the Case Resistance Principle,' *Linguistic Inquiry* 17.

Ritter, E. (1995) 'On the Syntactic Category of Pronouns and Agreement,'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3.

Sells, P. (1995) 'Korean and Japanese Morphology from a Lexical Perspective,' *Linguistic Inquiry* 26.

Siloni, T. (1995) 'Noun Raising and the Structure of Noun Phrases,' in J. Bobljik and T. Bures, eds.,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4.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Webelhuth, G. (1995)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and the Minimalist Program*, Oxford, Blackwell.

Whitman, J. (1989) 'Topic, Modality, and IP Structure,'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Yoon, H.-J. (1993) 'Functional Categories and ECM,' i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3.

Yoon, J. H-S. (1990) *A Restrictive Theory of Morphosyntactic Interaction and its Consequenc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_____ (1994) 'Korean Verbal Inflections and Checking Theory,' *The Morphology-Syntax Connection: Papers from January* 1994 *MIT Workshop,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2.

_____ (1996) 'Ambiguity of Government and the Chain Condit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4.

Yoon, J.-R. (1990) *Korean Syntax and Generalized X-Bar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BSTRACT

Case Feature of COMP *-Nun*

Jeong, Yongkil

Verbal suffix *-nun,* which follows the sentential endings *-ta, -nya, -ca,* and *-la,* has long been argued to be a complementizer licensed in CPs which

are governed by N (Yoon 1990 and Jung 1992, among others). Lim (1995), however, suggests a possibility that the verbal suffix *-nun* is not a complementizer but a case marker. In this paper, I propose that the verbal suffix *-nun* categorially belongs to COMP and realizes genitive Case assigned to CP. Specifically, I argue that *-nun* is the genitive complementizer, compared to the genitive determiner *-uy,* under the assumption that Case may be realized as a nominal suffix when assigned to DPs and as a verbal suffixes when assigned to CPs. Under this analysis, the inflectional suffixes *-uy* and *-nun* share the feature [+Gen] and are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ir categorial features, that is, the former is [+N, -V] and the latter [-N, +V]. A convincing piece of evidence for the analysis of *-nun* as a genitive complementizer comes from the fact that *-nun* is licensed in exactly the same configuration as *-uy*. Both *-nun* and *-uy* are licensed only in the projections which are governed by N. The analysis of *-nun* as a genitive marker is also evidenced by the fact that *-nun* is interchangeable with *-uy* in interrogative clauses. Further, the fact that a genitive suffix '-ㅅ' historically developed into *-nun* also supports the analysis of *-nun* as the realization of genitives.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on the status of other inflectional suffixes which are licensed by N.

139-77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126
서울여자대학교 인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전자우편: jeongyk@swu.ac.kr